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한국 번역사 연구의 의의

본고는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한 다음, 그 기준에 따라 고대에서부터 20세기 초반¹⁾에 걸치는 한국 번역의 통사(通史)를 적절하게 시대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번역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번역학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비교문학과 응용언어학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권 학문의 영역에 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번역 작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 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A00591).

1) 여기서 '20세기 초반'이라는 시간적 경계는 대략 1910년대까지를 의미한다. 그 이후의 현대 번역사는 현대라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력과 아울러 번역 현상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온 관계로, 지금까지 번역학에서 성취한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번역과 번역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면서 번역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는데, 그 구체적인 움직임의 하나가 바로 번역사와 관련된 논의이다.

번역사가 번역학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으로 자리매김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이론적 토대에 관한 논의는 뎀(Pym, 1998)의 『번역사 방법론』(*Method in Translation History*)에서 비롯된다. 물론 번역학의 성립 자체가 당시까지 축적된 번역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에서 비롯되었으니만큼 그 이전에도 단편적이거나 번역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정 언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제 번역사도 적잖게 기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확고한 역사적 관점과 기술 태도에 입각해서 번역사의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번역사를 기술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체계화한 것은 역시 뎀(1998)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홈즈(Holmes)의 번역학 분류 체계상 ‘결과물 중심’(product oriented) 연구와 ‘시대별’(time restricted) 연구에 속하던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며²⁾, 따라서 뎀(1998)의 공헌은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기보다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연구 영역을 재해석하여 체계화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뎀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와 같이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번역의 결과물을 연대기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98: 1-19).

번역학이라는 학문은 태생적으로 실용적 성격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번역학은 이론 자체의 탐구와 개발을 넘어서서, 탐구의 결과로 개발된 이론이 바람직한 번역의 산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 여기서 번역사 연구의 일차적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즉, 번역사는 번역 이론의 성패 여부를 역사적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연구 현장이므로, 번역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유형의 텍스트가 특정한 시대에 발달한 번역 이론이나 특정한 번역 기법에 바탕을 두고 번역되었고, 만일 그 번역이 당대에 준용되던 여러 가지 가치적 측면에서 성공적

2) 이에 대해서는 유명우(2002: 16-17)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었다면, 그 이론이나 기법은 해당 유형의 텍스트 번역에 유효하다는 이론이 경험적이고 사실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결과가 곧바로 번역 교육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사 연구의 이차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번역사 연구에서 밝혀진 특정 번역의 기능과 특정 이론의 효력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번역 교육의 근본적인 고민에 유효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번역사 연구의 일반적인 의의에 덧붙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국 번역사가 시급하게 기술되어야 할 당위성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첫째, 우리 학계의 시각에서 조망된 독자적인 번역사 기술의 필요성이다. 이는 번역 자체가 일정 부분 정치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기도 하다. 타인의 시각으로 기술되는 우리의 번역사가 우리의 역사관 혹은 문화적 토양을 살피우리라는 기대는 거의 무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입장과 반하는 이와 같은 일체의 왜곡을 피하려면³⁾, 우리의 번역과 번역사에 정통한 우리 학계에서 자체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서 한국 번역사를 기술해야 한다. 둘째, 타국이나 타 언어권 번역사와의 비교를 위한 한국 번역사 기술의 필요성이다. 이는 우리의 번역사가 어느 정도 정체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국가의 번역사 또는 다른 언어권 번역사와의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 번역사는 상대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자산으로 일반 번역사에 기여하게 된다. 예컨대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언해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종교 경전 문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번역 양식과 번역물의 체재(體裁)는 다른 언어권에서 번역된 종교 경전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편적인 것으로든 특수한 것으로든 그 번역학적 의의와 성격이 객관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특히 과거에는) 번역도 인접 언어권과의 상호교섭사이며, 번역 현상도 모국어가 인접 언어권과 적극적 교류를 수행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분야의 역사 연구에서 그 결정체는 시대 구분이 된다. 이는 비단

3) 이러한 사례에 대해 김정우(2005: 144-146)에 논의된 ‘남아메리카의 번역사’를 참고할 수 있다.

‘모든 역사 연구는 시대 구분으로 귀착한다’(이광호 2001: 13)는 역사학자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예컨대 세기별 시대 구분처럼 자동적으로 나누어지는 시대 구분이 아니라면, 일정하게 구획된 한 시대에는 해당 시대와 해당 주제에 대한 총체적 연구 성과가 담겨서, 다른 시대와의 구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작업은 한국 번역사 연구의 성과가 집약된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개관

앞서 언급된 바 있듯이, 번역학의 하위 분야가 아닌 ‘번역사’라는 독립적이고 확고한 주제 의식 아래 이루어진 번역사 연구는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 연구 성과 역시 양적으로 많지 않다.

국외를 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퀘벡 포함)와 카메룬, 쿠바, 아일랜드, 홍콩 등의 개별 번역사가 기술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⁴⁾ 프랑스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사용 문제로 적잖은 사회 통합의 비용을 지불한 바 있는 캐나다를 비롯한 이들 국가(혹은 도시)가 대체로 둘 이상의 언어 혼용으로 인한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겪은 바 있다는 사실은, 해당 국가(혹은 도시)의 역사적 배경이 번역사 기술의 현실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번역사 연구의 성과는 모나 베이커(Mona Baker, 1998)의 저서 제2부에 잘 갈무리되어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이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는 국외에 비해 더욱 미흡하다. 번역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두드러지게 일어난 것이 1990년대 말이었다는 시간적 변수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양적인 불모 현상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다. 즉, 우리의 번역학 연구가 발전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 대부

4) 지역별, 시대별, 장르별 번역사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명우(2002: 17-19)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 번역사 연구의 선편을 잡은 공로는 마땅히 유명우(2002/ 2004)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최현배(1941=1982: 97-101)에도 소략하나마 한국 번역사가 기술되어 있지만, ‘한문의 뒤짐’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한글의 보급과 사용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본격적인 한국 번역사의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분의 논의가 번역 이론의 소개와 적용 및 번역 오류 분석을 위주로 한 번역 비평 및 번역 교육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따라서 번역사 분야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형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너 편 정도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유명우(2002)는 펴(1998)에 의지하여 번역사의 개념과 의의를 소개하고, 논의의 후반부(7장-11장)에서 한자 차자표기(이두, 향찰, 구결 등)와 언해, 역관(譯官) 등 한국 번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특히 말미(11장)에서 시험적으로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 번역사를 3단계(한자 차자표기 번역 시대, 언문 번역 시대, 한글 번역 시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명확하고 합리적인 시대 구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한자 차자표기(이두, 향찰, 구결)를 번역 자료로 간주하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만일 한자 차자표기 자료를 번역으로 간주한다면, 오늘날 자신의 언어와 전혀 무관한 언어의 문자를 빌려서 자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터키, 몽골, 이란 사람들도 매일같이 자신의 언어(구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고 있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⁶⁾ 언해 번역을 다루고 있는 유명우(2004)에서는 이전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찰 자료를 필역(筆譯, dictating translation)으로 보는 한편,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곧 언해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언해 번역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향찰을 비롯한 차자표기를 번역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는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정우(2005)는 번역사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번역의 정의를 논의하고 있는

5) 아래의 논의 이외에도 전현주(2004)는 제목에 ‘한국 번역 문학사’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다중체계 이론의 소개와 적용에 치중하고 있어서 본고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6) 터키는 로마자, 몽골은 키릴문자, 이란은 아랍문자(28개 중 4개는 이란 문자임)를 각각 빌려서 자국어어를 표기한다. 사실 ‘차자표기 번역 시대’라는 용어 자체도 언뜻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 언어생활의 4가지 국면 가운데, 기본적으로 표기는 쓰기와 관련된 것인 반면, 번역은 읽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어사에서는 이두와 향찰, 구결을 모두 ‘차자표기법의 발달’이라는 동일한 주제 하에서 다루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구결은 여기서 빼서 ‘독해’(읽기)라는 주제 하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데, 지금까지 제시된 전통적 개념과, 실제 번역 자료의 검토를 통한 경험적 이론 사이의 조화를 염두에 두었다.

김지원(2007)은 한국어 문자의 사용 양상을 시대별로 한자 차자표기, 한자와 한글 병용, 한글 전용 등의 제목 아래 개괄하고, 개화기 이후부터 이루어진 번역과 번역론을 소개한 다음, 현재의 번역물 출간 양상과 번역 교육, 번역가 조직, 번역 연구 등 국내의 전반적인 번역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⁷⁾

3. 번역의 정의와 자료의 확정

3. 1. 번역의 정의

번역사의 연구에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이다. 번역 자료의 범위 문제는 곧 ‘어디까지를 번역으로 볼 것인가’ 하는 번역의 정의 문제로 환원된다.

일찍이 야콥슨(Jakobson, 1959)은 모든 번역 현상을 세 가지 유형, 즉 언어 내적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과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 및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야콥슨 자신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번역 유형 가운데 ‘언어 간 번역’을 진정한 번역(translation proper)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언어 간 번역’을 진정한 번역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번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번역관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일단 번역을 “한 언어(source language)의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그와 등가를 이루는 다른 언어(target language)의 텍스트로 옮겨서 재현하는 과정이나 혹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⁸⁾

7) ‘한국의 번역 전통’이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글은 모나 베이커의 『번역학 사전』 제2부의 체재를 따라 기술되었다. 이 책의 수록을 염두에 두고 집필된 것으로 짐작된다.

8) 번역사 연구의 전제가 되는 번역의 정의에 대해서는 김정우(2005)에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다만, 번역의 단위를 단어까지 좁힐 수 있다는 주장은 여기서 유보하

3. 2. 한국 번역사의 자료

위와 같은 번역의 정의에 입각해서 한국 번역사의 내용물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⁹⁾ 우리말의 표기 수단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이후에 번역된 언해 문헌은 가장 확실한 한국 번역사의 자료가 되지만, 한국 번역사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가) 한문 전적

한국 번역사의 자료에는 목표언어가 중국어 문어(한문)로 된 것도 포함되지만, 본고에서는 목표언어가 한국어(문어 혹은 구어)인 경우(B→A 번역)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글이든 말이든 일단 원본(원천언어 텍스트)을 상정하기 어려운 한문 문헌은 번역 자료가 아니라, 원래부터 한문으로 창작된 한문 자료로 간주된다.¹⁰⁾ 이렇게 보면 (목표언어를 한국어로 국

고자 한다. 이론상으로는 외래어 표기와 같은 단어 차원의 자료도 번역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번역사를 논의하는 본고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분량을 가진 텍스트가 번역의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본고에서도 사서(史書) 등의 우리 측 한문 텍스트에 나타나는 외국(주로 중국)의 인명과 지명, 관직명 등 고유명사를 음역(音譯) 표기한 자료는 번역사의 자료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고의 입장과 달리 고유명사 표기 자료를 번역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한문 문장에서 한문 특유의 음역 방식인 가차(假借)의 원리에 따라 표기된 고유명사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후대의 차자표기 방법으로 표기된 고유명사, 예컨대 고유어 지명 ‘삼개’를 표기한 ‘麻浦’나 ‘애오개’를 표기한 ‘梨峴’ 등은 번역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어 고유명사 표기를 번역 자료에 포함시킨다면, 중국어 단어(말)가 원천언어가 되고, 음역 표기가 목표언어가 된다.)

9) 아래 제시된 번역 자료의 유형은 임시적인 것으로, 보다 세부적인 유형 제시는 제5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용례 제시는 제5장에서 이루어진다.

10) 물론 이들 번역 자료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에 기여했다면 일종의 영번역(零翻譯, zero translation)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오늘날의 글쓰기에서 로마자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한글과 혼용하는 상황을 연상하면 된다), 이론적인 논쟁에서나 가능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는 논증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두고 번역의 역사 시대를 운위한다는 것은 자칫 논의를 추상적인 흐름으로 이끌 위험성이 있다.

한시킨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되지만) 한국 번역사의 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 한문 번역(A→B)의 사례는 구전 설화가 기록된 자료나 우리말로 창작되었다가 나중에 한역(漢譯)된 자료로 압축된다. 전자의 경우는 원천언어 텍스트가 말로 된 한국어이고 목표언어가 글로 된 중국어(한문)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에 나오는 구전 설화나 처용가 등의 노래가 여기에 해당하고¹¹⁾, 후자의 경우는 원천언어 텍스트가 글로 된 한국어이고 목표언어가 글로 된 중국어(한문)로 한역 시조(時調) 자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번역 자료는 A→B 번역 혹은 외행 번역¹²⁾(outbound translation, 한-중 번역)의 자료에 속한다.

(나) 구결 자료

구결은 한문 텍스트를 독해할 때 원문에 없는 우리말의 구조를 보충하는 토(어미, 조사 등)를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대체로 조선시대에 발견되는 음독구결(=순독구결)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믿어지는 석독구결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의 구결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반 구결문은 ‘한문 독해 방법의 하나’(남풍현 1999: 14)로 한문 원문에 토가 달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석독구결문은 여기에 한국어식 어순을 지정하는 역독점(逆讀點)의 용법이 덧붙여 있어서, 일정한 독법에 따라 읽으면 그 자체가 완전한 한국어 문장이 된다.¹³⁾

그렇다면 이 석독(=훈독)구결 용법은 번역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정한 독법에 따라 읽을 때 완전한 한국어 문장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석독구결문은 번역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문 원문과 함께 쓰인 구결 자(-字)와 역독점 등을 표기 수단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목표언어를 문어 한국어로 볼 수도 있고, 구어 한국어로 볼 수도 있다. 표기 수단으로 인정하

11) 유명우(2002: 308-9) 참고. 그러나 이들 문헌에 사용된 한문이 어느 정도 한국어화한 한문이라는 점은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12) ‘나가는 번역’이라고도 하며(익명의 십사자 지적), 북한에서는 ‘반대번역’(김정우 2003: 308-9)이라고 한다.

13) 석독구결 자료의 독법은 이기문(1998: 62-64), 남풍현(1999: 71-7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면 목표언어 텍스트가 글이 되는 정상적인 번역 자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들을 단순히 한문 텍스트를 우리말로 ‘읽는 보조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목표언어 텍스트가 말이 되는 이른바 시역(視譯, sight translation) 혹은 독본구역의 사례가 된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깊이 천착해 보면,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안병희(1976: 153-161)에 따르면, 혼독과 번역은 읽는 대상이 전혀 달라서, 전자는 한문의 원문을 읽는 것이고 후자는 번역문을 읽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혼독은 구결자와 역독점의 도움을 받아서 원전 텍스트(한문)를 읽는 것이고, 후자는 완전히 백지에 새로 쓰여진 번역문을 읽는 것이라는 뜻이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좇아 석독(=혼독)구결 용법을 번역의 직전 단계, 곧 의사 번역(擬似翻譯, pseudo translation)으로 간주하기로 한다.¹⁴⁾ 동일한 원전에 대한 혼독과 번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독이 후대의 번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안병희 1976: 160).

(다) 석의류

석의류(釋義類)는 일반적으로 주석 자료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석의류가 중국의 주석(註釋), 집주(集註), 소주(疎註) 등과 다르다는 점은 일찍부터 지적된 사실이다(최현배 1982: 101). 석의류 자료는 “독음, 구두, 어법, 석사(釋事), 설명수사법, 이설(異說) 비교 분석 등이 망라된 종합적인 해석서”(박소동 1995: 28-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석의류 자료를 보면, 주어진 자구(字句) 해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원문에 대한 번역이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종합 해석서’란 번역까지 아우른 개념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자료는 원문에 대한 번역이 포함된 전반적인 번역 비평서라고 할 수 있다.¹⁵⁾

14) 일본에도 혼독의 전통이 있는바, 이희재 역(2001)에서는 이를 일종의 번역으로 보고, 모나 베이커(1998: xvii)에서는 일본어 발음을 취음해서 ‘kambun kundoku’ 혹은 중국어 원전의 ‘해석적 독해’(interpretive reading)라고 부르면서 이를 ‘언어 간 번역과 언어 내 번역의 중간적 존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의사 번역’이라는 용어는 모나 베이커(1998: 183)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상 번역’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라) 정음 번역 문헌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인 15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엄청난 분량의 언해¹⁶⁾ 문헌은 한국 번역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마) 기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번역(번안 포함)도 물론 한국 번역사의 자료에 들어간다.

4. 시대 구분의 방법론

4. 1. 시대 구분 일반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은 사료의 취급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전체와 편년체 및 기사본말체로 나뉜다. 기전체는 왕조와 인물 중심의 서술이고, 편년체는 연대기 중심의 서술이며, 기사본말체는 사건 중심의 서술이다. 역사학 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시대 구분 방법론의 전범이 되어 현재까지 유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액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한 학문 분야의 하위 범주로 존재하는 그 학문의 연구사나 발달사는 해당 학문 분야의 합목적적 발전에 기여할 수

15) 석의류 자료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음 번역 자료로 볼 수 있지만, 후술하듯이 일반적인 번역과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제 5장에서는 이를 번역 양식의 한 유형으로 다루게 된다. 김정우(2005: 156-7)에는 석의류 자료와 『코란』의 페르시아어 번역 사이의 유사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16) ‘언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문 원전에 대한 언문 번역’이다. 따라서 다른 외국어 원전의 우리말 번역 문헌에는 ‘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말, 만주말, 몽고말에 관한 조선식 해석에 대하여는 결코 ‘언해’란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중략] 같은 책 이름 ‘老乞大’의 한글 뒤침입에도 불구하고 중국말 ‘老乞大’의 뒤침입에 대하여는 ‘老乞大諺解’라 하고, 청나라말과 몽고말의 것에 대하여는 ‘新編老乞大’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최현배 1982: 97) 한편 “언해는 그 주안이 본글(原文)인 한문의 이해에 있지만, 뒤침[번역]은 반드시 한문의 이해를 주안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내용의 포착만을 위주로 한다.”는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같은 책 101).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학사는 과학의 역사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과학 이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통시적 조망을 통해 과학 이론의 발전 법칙에 기여하는 데 보다 중요한 관심이 있다. 모든 역사의 시대 구분에는 근본적으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설 때, 한국 번역의 역사를 기술하고 나아가서 이를 시대 구분하고자 하는 우리는 전통적인 역사 서술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고 번역학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우리에게 유익한 참고가 되는 분야가 바로 언어사이다. 번역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언어사의 기술 방식이 번역사의 기술과 시대 구분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4. 2. 언어사의 시대 구분 - 외사와 내사의 구분

언어사의 기술에서는 외사(外史)와 내사(內史)를 엄격하게 구분한다(이기문 1998:17). 외사란 해당 언어 사용자의 본거지나 이주의 역사적 행로 혹은 다른 언어 사용자 집단과의 접촉이나 교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동 따위, 곧 해당 언어에 영향을 미친 제반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이에 비해 내사란 해당 언어 내부적으로 발생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컨대 국어의 외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선조가 언제 어떻게 공통조어(共通祖語)에서 갈라져 나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기원의 문제를 비롯하여, 고대국어에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사건, 곧 국가의 형성과 외국과의 전란, 사회와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각종 정치 현상 등을 아우르게 되고, 국어의 내사는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에 이르는 기간에 국어에 일어난 갖가지 변화 양상, 곧 국어 문법 구조의 변화, 음운 체계의 변화, 형태 구조의 변화 등을 아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언어사는 내사를 위주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사는 언어 자체의 역사인 반면, 외사는 언어를 둘러싼 언어 주변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사에만 의존해서 만족스러운 언어사의 기술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외사를 언어사의 기술에 도입해야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외사가 언어사

의 직접적인 기술 근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사의 항목에 포함되는 각 요인이 언어사 전반에 기여하는 가중치이다. 다시 말해 음운 체계의 변화와 형태 구조의 변화 혹은 통사 구조의 변화 가운데 어떤 것을 위주로 언어사를 기술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보편사와 그 하위의 특수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시대 구분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치는 불가능하다(이광호 2001: 33). 언어사의 기술에서도 내사의 각 영역인 음운과 형태, 통사의 측면에서 시대 구분 지표가 모두 일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컨대 비교적 연구 성과가 충실하게 축적된 국어사에서 그러한 행운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음운 체계의 변화라는 한 가지 인자를 기준으로 한 시대 구분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여기에는 음운 체계가 변화되면 그에 따라 문법이나 어휘가 체계적으로 변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음운론적 사실이 문헌 자료 해석의 기본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음운사를 이처럼 중시하는 데는 음운사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사나 어휘사 등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사의 시대 구분 방법론은 번역사의 시대 구분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언급한 언어사의 시대 구분 성과를 번역사의 시대 구분 방법론 연구에 도입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론적 토대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언어사가 내사에 해당하는 변화의 인자를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듯이, 번역사도 일차적으로 번역 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화의 인자를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한국 번역사의 발달을 주도한 내부적인 인자들 사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내사에 속하는 인자라도 음운 체계의 변화가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듯이, 한국 번역사의 기술에서도 특정한 변화의 인자가 다른 인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상의 전제를 기반으로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방법론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번역사의 내사에 포함될 수 있는 인자를 추출해 보기로 한다.¹⁷⁾

4. 3. 한국 번역사와 변화의 인자

한국 번역사의 내사를 구성하는 변화의 인자¹⁸⁾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에는 자료의 유형 자체와 표기 수단을 비롯한 번역 양식 및 번역 체재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번역물의 내용적 분류가 포함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변화의 인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료의 유형 자체인데, 이는 목표언어의 표기 수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연대기적 추이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한 변화를 지배하는 인자는 중요한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번역 양식(기법)에서는 직역과 의역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선 초기의 번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기법이 그 변종까지 총망라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5세기의 언해 문헌은 역사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번역의 양식을 거의 모두 시험해보고 있다. 『법화경 언해』와 『석보상절』,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경우처럼 한 가지 한문 원전을 두 번 이상 번역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번역자들이 직역(literal translation, =SL 중심 번역, 축자번역)과 의역(literary translation, =TL 중심 번역, 의미번역/자유번역)의 개념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실제 번역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고민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이 두 가지 번역 양식(기법)이 연대기적으로 일정한 추이를 노정한다면, 그것 역시 번역 양식을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번역 체재를 보면, 언해문에는 일반적으로 원문과 주해문의 필요한 곳에 구결이 달려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실현 양상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능엄경언해』는 한문 본문과 구결, 언해, 한자어의 독음 등으로

17) 번역의 정치적 속성이나 사회문화적 기능을 고려할 때, 외사적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사만으로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힘들 것이다. (익명의 심사자 지적)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본고에서 내사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번역사의 시대 구분 성과가 지나치게 외사 위주로 표현된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의 내사 중심 의도는 하나의 원칙을 표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8) ‘변화의 인자’란 시대 구분의 인자 혹은 기준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루어져 있고, 『묘법연화경언해』는 한문 본문과 구결, 언해, 한자어의 독음 및 한문 주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의 존재 여부나 편집의 체제 등도 체제 변화를 가늠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의 체제 역시 연대기적으로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노정한다면,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의 인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번역의 사회문화적 양상인데, 이는 다시 ‘어떤 시대에 어떤 번역이 생산되었는가?’ 하는 배경과, ‘번역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두 가지 인자 가운데 전자에 주목한다. 후자는 번역 자료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번역 자료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¹⁹⁾

- (가) 시가 관련 문헌
- (나) 종교 관련 문헌
 - (나.1) 불교 관련 문헌
 - (나.2) 유학 관련 문헌(사서 및 주역)
 - (나.3) 교화 관련 문헌
- (다) 실용 문헌
 - (다.1) 의약 관련 문헌
 - (다.2) 농사 관련 문헌
 - (다.3) 어학(역학) 관련 문헌
 - (다.3.1) 운서
 - (다.3.2) 옥편
 - (다.3.3) 자서
 - (다.4) 병학(兵學) 관련 문헌

위의 분류에 속하는 개별 번역 자료에 대한 해제 작업은 국어학 분야에서

19) 이 내용 분류 체계는 5.2절의 논의에서 이루어질 자료의 검토와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번역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음미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성격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진 만큼, 우리는 여기서 시간적인 변화의 인자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류 체계를 따라 각 항목에 속한 번역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연대기적인 변화의 양상을 추출할 수 있다면, 번역 자료의 내용적 측면 역시 훌륭한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시대에 특정한 내용의 번역 문헌이 다수 간행되는 경향성을 띠는 것은 그러한 번역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번역 자료의 내용에서 일정한 역사적 변화의 흐름을 찾아내려는 우리의 작업도 번역사의 시대 구분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번역 자료의 분석

앞선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5장에서는 한국 번역사의 자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대 구분의 인자를 찾아보고자 한다.

5. 1. 형식적 측면

5.1.1. 번역 언어(SL/ TL)의 유형

번역 언어는 번역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원천언어(SL)와 목표언어(TL)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원천언어를 살펴보자. 한국 번역사에 등장하는 번역 자료의 원천언어는 19세기 말엽까지 거의 대부분²⁰⁾ 중국어 문어(=한문)이다. 한문 이외의 원천언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8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즉, 1882년에 선교사 로스 등에 의해 만주에서 나온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시작으로 1910년 무렵²¹⁾까지 30여 권의 성서 번역본이 등장했으며, 뒤이어 1895년에 이

20) 인접국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침해신어』, 『청어노결대』 등의 역학서나 산스크리트어 진언을 한글로 음역한 『오대진언』 등이 드문 예외로 꼽힌다.

21) 1910년대라는 연대는 국어학과 국문학사에서 ‘개화기’라고 불리는 시기의 하한선

동이라는 인물이 일본어판 『아라비안 나이트』를 번안(중역)한 『유옥역전』을 내고, 선교사 게일 부부가 같은 해에 『턴로력덩』(*The Pilgrim's Progress*)을 내면서 역시 1910년 무렵까지 20여 권의 번역 소설이 등장했다.²²⁾ 따라서 한국 번역사에서는 1882년을 기점으로 원천언어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표언어를 살펴보자. 번역 자료의 외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표기 수단, 곧 목표언어(문자언어)의 유형이다. 고유명사를 기록한 단편적인 표기 자료와 한문 전적 자료를 제외하면, 불완전하지만 한국 번역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번역 자료는 석독구결이 표기에 사용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자료는 총 6종이 소개되어 있다(백두현 2005: 14-15).²³⁾ 이들 석독구결 번역 자료는 대체로 고려시대(11세기-13세기 중엽)의 자료로 추정된다. 앞의 3.2절에 언급했듯이, 이들 자료는 번역의 직전 단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일종의 의사 번역으로 판단된다. 아래에 용례(구역인왕경)를 제시한다.²⁴⁾

(1.a)

ソ	七	ノ	市	ノ	市
復	有	他	方	不	可
					量
					衆
七	ナ	分	矢	ハ	ヒ
					ソ
					ノ

이다. 논의 전개의 편의상 이를 원용한 것이다. 각주 1) 참고.

- 22) 이현희(1999) 참고. 김병철(1975: 152-153)에서는 이 두 작품에 대해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번역 작품은 『유옥역전』이고,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둘 모두를 최초의 번역 작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유옥역전』에는 1895년 7월로 간행 시기가 월 단위까지 밝혀져 있지만, 『턴로력덩』에는 1895년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23) 『釋教分記』(11세기), 『華嚴經疏』(12세기 중엽 혹은 그 직후), 『華嚴經』(12세기 말-13세기 초), 『舊譯仁王經華』(13세기 중엽 이후), 『金光明經』(13세기 중엽 이전), 『瑜伽師地論』(13세기 말엽) 등이다.
- 24) 이 용례와 독법은 남풍현(1999: 37-38)에서 가져왔다. 원래 세로로 쓰였던 것을 가로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원래 없던 한문의 자간도 구결자(토)를 넣기 위해 띄운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한문 글자의 (오른쪽) 위에 있는 구결자는 원래 해당 글자의 아래쪽 오른쪽에 적혀 있었으며, (오른쪽) 아래 있는 구결자는 아래쪽 왼편에 적혀 있었던 셈이다.

(1.b)

復ッ 他方七 量ノ 可ッ 不知 衆有 (약자)
 復爲隱 他方叱 量乎音 可叱爲隱 不知是飛叱 衆 有叱在弥 (정자)

(1.c)

또흔 他方八 量흠 짓흔 안디이닛 衆 잇겨며 (중세국어)
 또한 타방의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있으며 (현대국어)

위의 자료를 보면, 먼저 해당 텍스트의 행에서 오른쪽(현재는 위쪽)에 구결자(토)가 표기된 글자부터 차례대로 읽은 다음에, 역독점이 찍힌 곳에서 다시 위(현재는 앞)로 되돌아가 왼쪽(현재는 아래쪽)에 구결자(토)가 표기된 글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可’)을 읽는데, 이 뒤에도 역독점이 있으므로 왼쪽에 구결자(토)가 표기된 가장 가까운 것(‘不’)을 읽게 된다. 여기에는 역독점이 없으므로 아래(현재는 뒤)로 내려가서 이제까지 읽지 않았던 것(‘衆’)을 읽는데, 이 뒤에 역독점이 있으므로 다시 위로 올라가 왼쪽에 구결자(토)가 표기된 것(‘有’)을 읽으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읽어서 원 자료의 어순을 조정한 것이 (1.b)이고, 이를 우리말로 옮긴 결과가 (1.c)이다.

석독구결 번역 자료에 뒤이어 등장하는 번역 자료는 이두로 된 번역 자료인데,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1395)와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1415) 및 『우마양저염역치료방(牛馬羊猪染疫治療方)』(1541)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번역 자료는 비록 한글이 아닌 이두로 표기되어 있지만, 석독구결 번역 자료와 달리 완전한 번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전과 무관하게 이두 문자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용례를 제시한다.

- (2.a) 雖犯七出 有三不去 (『大明律』 戶律 - 婚姻 - 出妻)
- (2.b) 必于 七出乙 犯爲去乃 三不去有去乙
- (2.c) 비록 칠출(칠거지악)을 범했으나 삼불거가 있거늘 (현대국어)

위의 용례에서, (2.a)는 한문 원전인 『대명률』의 일부이고, (2.b)는 이 부분을 이두로 옮긴 번역문으로 『대명률직해』에서 해당 항목(‘出妻’)의 한문 원문이 끝난 다음에 실려 있다. 표기는 이두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한국

어 문장이다. 이와 같이 한문 원전과 별개로 새로 쓰여진 번역문이라는 점에서 (2.b)의 자료는 한문 원전에 구결문자와 역독점을 표기한 (1.a)의 자료와 비교된다. 이 이두 번역문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번역 자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두에 의한 번역은 조선시대²⁵⁾ 초기에 나타났다가,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 정음에 의한 번역 자료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²⁶⁾

15세기 중반에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인 훈민정음(한글)이 창제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분량의 번역 자료가 쏟아진다. 이는 그동안 우리에게 번역의 기술이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음에 의한 번역 자료는 『훈민정음언해』가 나온 1447년부터 19세기 말엽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19세기 말엽을 정음 번역 자료의 종착점으로 본 것은 대략 이 시기를 전후해서 표기 문자의 위상이 현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대체로 개화기의 개막과 일치하는데, 이때 서양 문물의 전래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포함한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글을 각각 ‘국어’와 ‘국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근세에 들어 ‘국문’(國文)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강위였으며²⁷⁾, 조선 정부에서 ‘국문’이라는 명칭이 문서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894년이였다.²⁸⁾ 이와 같은 우리 어문의 위상 변화는 실제 문자 생

25)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이두 자료가 있지만, 본격적인 번역에 활용된 전적 형태의 자료는 없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이두 번역 자료는 표기 체계로서의 이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두 자료’라고 언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두 번역 자료’라는 용어를 택했다.

26) 번역이 아닌 표기 체계로서의 이두가 사용된 자료는 근대국어론 거쳐 19세기까지도 발견된다. 이두 자료 목록은 홍운표(1997: 216-221)를 참고할 수 있다.

27) 1869년에 지은 자신의 저서 제목(『擬定國文字母分解』)에 나온다. 조규태(2007: 7) 참고.

28) ‘국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掌國文綴字各國文釋及教科書編輯等事 [고종실록 고종 31년(1894. 6. 28)조]
- 勅令/ 第一 公文式/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바탕을 삼고, 한문 번역을 덧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관보 1894년 11월 21일]
- 勅令 第八十六號 公文式/ 第一章 頒布式 第九條: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써

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반포된 1446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한 표기 문자는 모두 정음(또는 한글)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19세기 말엽을 전후해서 목표언어의 유형을 달리 설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목표언어의 유형은 뚜렷한 연대기적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정리하면, 석독구결 번역 시대(11-13세기), 이두 번역 시대(14세기-15세기 중반)²⁹⁾, 정음 번역 시대(15세기 중반-19세기 말엽) 및 한글 번역 시대(19세기 말엽 이후)가 된다. 여기에 앞서 논의했던 원천언어의 유형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한글 번역 시대의 특징으로 표기 문자의 위상 변화라는 인자 이외에 한문 번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기 시작하는 원천언어의 다변화라는 인자를 하나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5.1.2. 번역 양식

번역의 양식이란 목표언어 텍스트의 다양한 실현 양상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좁게 보면 번역 기법이 관련되어 있고 넓게 보면 특정한 텍스트의 번역 작업에서 번역자가 채택한 번역 전략이 관련되어 있다.

한국 번역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번역과 관련된 양식은 구결 작업이다. 앞서 3.2절에서 언급했듯이 구결 번역 자료는 석독구결 자료와 음독구결 자료로 나뉜다. 전자에 대해서는 앞선 논의를 통해 이미 의사 번역으로 그 성격을 규정해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음독구결 자료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인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초기(13세기 후반~15세기 초반)에도 발견되는데³⁰⁾, 이는 차자표기로 기록된 자료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간경도감에서 발간된 불경 언해의 한글 구결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가운데는 한문 구성소를 음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글자(예: 者, 則,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 國漢文을 混用함 [관보 1895년 5월 8일] 조규태 (2007: 7-8)에서 재인용함.

29) 이두 번역 자료인 『우마양저역역치료방』은 간행 시기가 16세기 중반인 1541년이지만, 이는 이두에 익숙한 중인층(中人層) 독자를 위한 배려로 보인다. 일종의 복고적 표기인데, 한글 번역이 같이 붙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에 무게를 실어준다.

30) 남풍현(1998: 232-233)에 의하면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순독구결(=음독구결)로는 『楞嚴經』(南豐鉉本) 등 14종이 알려져 있다.

故 등은 각각 ‘(으)ㄴ’, ‘(으)ㄴ’, ‘(며)ㄴ’으로 읽음)를 혼동하는 자료도 있는데, 석독구결에서 음독구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남풍현 1998: 233).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표기된 중요 음독구결 자료는 다음과 같다.³¹⁾

- (3.a) 15세기 구결 자료
 - 원각경구결(1465년 경)
 - 주역전의구결(1466년 경)
 - 주역전의대전구결(1466년 이후)
- (3.b) 16세기 구결 자료
 - 논어대문구결(16세기 중엽)
 - 남화진경대문구결(16세기 중엽)
 - 구해남화진경구결(16세기 중엽)
 - 소학집설구결(16세기 중엽)
 - 예기집설대전구결(16세기 중엽)

이들 음독구결 자료는 근대 국어 시기에 발견되지만, 구결 자체의 성격상 본격적인 번역으로 보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 음독구결이란 한문 텍스트를 읽기 위한 목적으로 한문 원문에 달린 토이기 때문이다. 즉, 음독구결을 구결자와 한문 원문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한다고 해도 이는 쓰기(writing)가 아닌 읽기(=독해, reading)일 수밖에 없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음독구결 자료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석독구결 자료와 달리 의사 번역으로 보기도 어렵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한글 음독구결 자료 역시 다음의 예문 (4)에서 보듯이 동일한 원전에 대한 한글 번역 자료의 존재로 인해 번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음독구결 자료는 번역으로 볼 수 없다.³²⁾ (4.a)는 구

31) 아래 목록은 이현희(1996: 220-221)를 참고했다. 남풍현(1998: 234)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16세기 중엽 자료인 『乙亥字本 書傳大文』 등 유가(儒家)의 구결 자료 10종을 밝히고 있다.

32) 여찬영(2003: 244)에서는 구결문을 “원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내적 번역이 전제된 문법적 번역이 이루어진 중간 단계의 특이한 문장 형태”로 보고 있다. 구결의 존재 자체가 원문과 번역문을 연결하는 번역자의 심리 과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라는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결문인데 밑줄 친 부분이 구결이고, (4.b)는 이에 대한 한글 번역(=언해문)이다.

- (4.a) 卽諸佛心地法門也 | 라(능엄경 5)
- (4.b) 곧 諸佛心地法門이시니라. (능엄경언해 5)

다음으로 다를 번역 양식은 석의(釋義)이다. 위의 3.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석의는 구결과 언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요점정리식으로 풀이한 형태이다 (박소동 1995: 3). 지금까지 석의 자료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제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최현배(1982: 97-101)에서는 구결과 석의가 고려 말엽과 이조 초엽의 유학 대가 정몽주와 권근에 이르러서 집대성되었다고 하면서(같은 책 98), 이어서 “한문 서적에 여러 선비들의 주석을 베풀고 또 짓는이 스스로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중략] 우리말로써 그 풀기 힘든 곳을 풀이한 ‘새김’과 한 가지 뜻의 것이다. 그러한즉, ‘석의’는 토, 구결보다 한문의 배달삼기(朝鮮化)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만하다”(같은 책 101)고 했다. 이충구(1989: 11-77)에서는 고려말부터 약 540여 년간 이루어진 한문 경서(經書)의 한국화 과정(=해독 내지 번역)을 구결→의역→석의→직역→주석 등 5단계로 설정하고, 구결과 의역과 석의를 경문 해독의 최종 단계인 직역(=언해)에 이르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보았다. 그러나 박소동(1995: 3)의 지적처럼, 직역과 의역이 결국 번역 대상과 대상 독자층에 따라 결정되는 번역 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둘을 제외한 구결과 석의 및 번역을 일종의 번역 양식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무난할 것이다. 다음에 석의류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유형별로 제시한다(박소동 1995: 31-60).

- (5.a) 이설(異說)의 종합 분석
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 上章, 國은 利로 利를 삼디아니호고 義로 利를 사므미니라. 下章, 國은 利로써 利를 삼고 義로써 利를 삼디아니호미니라. 按此兩章之設, <중략> 今當依上章所釋 (위의 책 31-32)
- (5.b) 자석(字釋)
奚其爲爲政 : 엇디하야사 그 政을 하다하리오 今按次設是 但須知 엇디하야사之意 只包在奚其兩字之中 而上爲字非 하야사之爲 乃屬下句而

爲虛字方可 <하략> (위의 책 36-37)

(5.c) 구두(句讀)와 구결[토]

武王末受命 : 武王이 末에 受命이어시닐 (위의 책 41)

(5.d) 독음(讀音)

踧踏 : 上子六切 下音讀 然則當죽적 然今俗音축적 恐難改也 (위의 책 47)

(5.e) 문답형 논변

皆實利也 : 問皆字指道與何事歟 抑指道與而總言之者耶 曰指道而總言之 (위의 책 48)

(5.f) 판단 유보³³⁾

行旅皆出於王之途 天下之欲疾其君子 : 王之塗³⁴⁾면 <중략> 그 君을 疾코져 홀자 或云 塗³⁵⁾며 欲疾其君子로 王이니 此設更詳之

위 (5.a~f)에 나온 용례를 검토해 보면, 석의를 ‘번역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서’로 규정된 논의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석의 자료에서 시대 구분에 기여하는 변화의 인자를 찾아내는 일이다. 현전하는 석의류 자료 중에서 연대가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³⁴⁾

(6.a) 경서석의(1609)

(6.b) 사서석의(1609)

(6.c) 근사록석의(1661)

자료의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가, 1609년과 1661년의 사이에 다수의 언해 문헌이 출간된 사실³⁵⁾로 미루어 볼 때, 석의류 자료를 시대 구분의 인자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석의류 자료를 경서의 번역과 관련된 독특한 번역 양식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번역 양식은 직역과 의역이다. 일반적으로 직역과 의역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와 예상 독자층의 성격에 따라 번역자가 선택하는

33) 원문 ‘更詳之’는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정도의 뜻이다.

34) 이 밖에도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의 자료로 추정되는 『사례석의』와 1907년에 간행된 『유년필독석의』가 있지만, 마지막 것은 ‘석의’라는 명칭이 제목에 사용되었음에도 내용상 위와 동일한 자료로 보기 힘들다.

35) 이에 대해서는 다음 5.1.3항에서 제시되는 번역서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번역 전략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역의 전략이 채택되고, 보다 읽기 쉬운 번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역의 전략이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역과 의역의 번역 양식이란 어느 정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 번역에서는 이 두 가지 양 극단 사이의 변종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한다면 직역과 의역이란 술어는, 하나의 원전에 대해 서로 다른 양식(기법)으로 번역된 두 가지 이상의 자료가 존재할 때 각각의 두드러진 양식을 가리키는 경우에만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원전이 두 번 이상 번역된 언해서를 갖는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는 대단히 흥미롭다. 안병희(1973: 76-77)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번역 자료는 다음과 같다.

- (7.a) 원전: 小學 / 번역: 번역소학(1518), 소학언해(1587)
- (7.b) 원전: 妙法蓮華經 / 번역: 석보상절(13-21, 1447),
월인석보(11-19, 1459), 범화경언해(1463)
- (7.c) 원전: 阿彌陀經 / 번역: 석보상절(7, 전하지 않음),
월인석보(7, 1459), 아미타경언해(1464)
- (7.d) 원전: 朴通事 / 번역: 번역박통사(1517 이전), 박통사언해(1677)
- (7.e) 원전: 老乞大 / 번역: 번역노걸대(1517 이전), 노걸대언해(1670)

위 자료를 직역과 의역으로 구분해 보면, 대체로 전자가 의역인 데 비해 ‘언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간 후자는 직역의 양상을 보인다. 이를 시기적으로 보면, 같은 원전을 의역의 기법으로 옮긴 번역이 먼저 나타나고, 직역의 기법으로 옮긴 번역이 나중에 나타난다(1518-1587, 1447/1459-1463, 1459-1464, 1517-1677, 1517-1670). 그런데 이러한 번역 양식(기법)의 변화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선조 때 교정청에서 간행된 『소학언해』의 범례와 발문을 보면, 종종 때 간행된 『번역소학』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意譯을 하게 되어 原文의 뜻을 잃었을 뿐 아니라, 註釋까지도 本文에 敷衍하여 翻譯하였으므로, 글이 산만해진 곳이 있어서 나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小學諺解는 선조의 뜻에 따라 오로지 漢文인 原文에 의거하여 ‘逐字作解’, 곧 直譯하고 뜻이 통하지 않는 곳에 夾註를 달아서 原典의 뜻을 살리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안병희 1973: 77)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들 두 가지 번역 양식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비율, 원문 품사의 고수 여부, 전이어(轉移語, transitional word)의 사용 여부, 경어법의 반영 여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³⁶⁾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번역 양식의 변화는 ‘한문 원전(유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명제에 대한 번역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역 양식의 변화에서 시대 구분과 관련된 변화의 인자를 찾아낼 수 있는가? 위의 자료 (7.a~e)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다. 예컨대 15세기 중반에 ‘직역’의 양식이 나타나는데(법화경언해 1463), 16세기 초반에 ‘의역’의 양식이 나타났다가(번역소학 1518), 16세기 후반과 17세기 후반이 되면 다시 ‘직역’의 양식이 나타나는데(소학언해 1587, 박통사언해 1677) 등 어떤 한 가지 양식이 연대기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번역 양식은 변안이다. 모나 베이커(1998: 6)에 따르면, 변안은 “원전에서 언급된 맥락이 목표 텍스트의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모종의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이 가능한 절차”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변안이란 문화적 불합치라는 위기 상황에서 번역자가 등가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라는 것이다.³⁷⁾ 배경의 변환이 필수적인 희곡 계통에서 변안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변안은 번역보다 자유롭고, 모방보다 창조적인 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변안에 의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고려 시대에는 『태평광기(太平廣記)』에서 취재한 가전(假傳)의 변안이 보이고, 조선 시대에는 『삼언이박(三言二拍)』,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수호지(水滸誌)』 등 중국 소설에서 취재한 개작 변안이 많았다. 이러한 변안 소설이 또다시 유행한 것은 개화기 때인데, 원작도 중국 문학에서 주로 일본 문학과 서구 문학으로 바뀌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변안 소설로는 일본 작품 『설중매(雪中梅)』를 수용한 『설중매』와 『금색야차(金色夜叉)』를 받아들인 『장한몽』이 있고, 프랑스 작품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수용한 『해왕성(海王星)』 등이 있다.³⁸⁾ 위에서 살펴

36) 구체적인 용례는 안병희(1973: 78-85)와 김정우(1990)을 참고할 수 있다.

37) 문화 텍스트의 번역 과정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자국화’(domestication)의 번역 태도가 광범위하고 극단적으로 적용된 경우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태도는 흔히 이질적인 문화 수용의 초창기에 나타난다.

38) 한국 문학사에 나오는 변안 소설에 관한 논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브리

본 바와 같이 번안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및 개화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연대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국 문물의 수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분량이나 출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것도 시대 구분에 기여할 정도는 아니고, 개화기라는 시대의 한 가지 특징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 양식에서는 뚜렷한 연대기적 변화의 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5.1.3. 번역 체제

형식적 측면 가운데 시대 구분을 위해 끝으로 살펴볼 사항은 번역본의 체제이다.³⁹⁾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반포된 이후에 정음으로 번역된 최초의 문헌인 『훈민정음언해』는 다음의 (8)과 같은 체제로 되어 있다.⁴⁰⁾

- (8.a) 異乎中東國語야
- (8.b) 異는다를씨라 乎는아모그에호논겨체브는字종 | 라 中東國語은皇嚮帝명겨신나라히니
우리나라常常談때에江江南이라호느니라
- (8.c) 中東國語에달아

위에서 (8.a)는 원문 어구로 한자에 독음이 달려 있고 필요한 곳에 구결(여기서는 ‘호야’)이 붙어 있다. (8.b)는 한자(또는 한자어) 뜻풀이인데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고, (8.c)는 최종 번역문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원문(또는 구결문), 소자협주(小字夾註), 번역문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언해의 체제는 일종의 한(漢)-한(韓)

태니커사전』의 내용을 참고했다.

39) 석독구결 번역과 이두 번역 자료는 그 자체가 독특한 체제이므로 여기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
40) 원문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음(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해당 한자의 오른쪽 아래에 달려 있고, 크기도 본문 한자의 절반 정도이다. 협주의 글자 크기도 본문 한자의 절반 정도이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되어 있지 않다. 한 행에 두 줄씩 배치된 (8.b)도 모두 붙어 있지만, 편의상 각 글자에 대한 풀이를 띄어서 표기했다. 방점은 모두 생략했다.

대역이 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위 (8)과 같은 체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증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번역 체제와 관련 되어 조사의 초점이 되는 사항은 ①원문(구결문), ②협주, ③번역문 등 크게 세 가지가 되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항목이 더 늘어난다. 즉, 원문은 구결 표기 여부, 한자어에 대한 독음 부기 여부, 원문 자체의 존재 여부 등으로, 협주⁴¹⁾는 유무 여부와 국한문 사용 양상으로, 번역문은 국한문 혼용체와 순국문체 등으로 각각 세분할 수 있다.⁴²⁾ 한편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간행된 정음 번역 문헌은 그 수효가 상당히 많지만,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문헌 64권⁴³⁾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검토 대상이 된 자료의 목록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문헌 제목, 간행 연도가 뒷줄에 제시되고, 원문, 협주, 번역문의 체제 및 내용 종별이 아랫줄에 제시된다.)⁴⁴⁾

-
- 41) 여기서 말하는 협주는 번역문의 협주만을 가리킨다. 원문의 한문 협주는 원전의 체제이므로 논외로 한다.
- 42) 구결에는 정음 구결도 있고, 한자나 약체자로 된 구결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여찬영(2003)을 참고할 수 있다.
- 43) 위 (9)에 제시한 번역서 목록은 『한글 옛 문헌 정보 조사 연구』(2001, 문화관광부)에 소개된 ‘중요한 한글 옛 문헌 목록’을 위주로 해서 가려 뽑은 것이다. ‘중요한 한글 옛 문헌 목록’은 원래 이 보고서에서 국어학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이다. 대체로 서지 사항이 확실하고, 특정 시기의 국어 사용 양상을 잘 드러내는 문헌을 선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목록을 여기서 다시 참고한 것은 이들 문헌 자료가 시기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간행 연도 등이 분명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의 목적이 시대 구분의 인자를 추출하는 것이므로 번역 자료의 완전한 목록이 아니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 44) 『홍무정운역훈』, 『오대진언』 등의 운서나 진언집도 한글로 한자의 음을 표기한 것이므로 번역 자료로 볼 수도 있지만, 번역 체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아 본 목록에서 제외한다. 단, 내용적 측면을 논의하는 다음 5.2절에서는 운서류 등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초간본이 망실된 자료도 목록에서 제외했지만, 간행 당시의 체제를 간직했다고 믿어지는 복각본일 경우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에도 한문 원문과 정음 번역문이 실려 있지만, 서찰 자료인 관계로 현재의 목록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한문 원문에 구결이 달려 있지 않는 등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과 체제상의 차이를 보인다.

(9) 검토 대상 번역서 목록

01. 『세종어제훈민정음』(훈민정음 언해본) : 1447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어문류
02. 『능엄경』⁴⁵⁾ : 1462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03. 『법화경』(妙法蓮華經) : 1463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04. 『반야심경』(金剛般若波羅密多心經六略疏) : 1464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05. 『불설아미타경』 : 1464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06. 『선종영가집』 : 1464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07. 『금강경』(金剛般若波羅密經六祖解) : 1464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08. 『원각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六經略疏) : 1465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09. 『목우자수삼결』 : 1467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10. 『범어』 : 1467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11. 『몽산화상범어』 : 1472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12. 『내훈』 : 1475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13. 『두시언해』(分類杜工部詩) : 1481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없음), 시가류
14. 『삼강행실도』 : 1481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⁴⁶⁾, 유경류
15. 『남명집』(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 1482년

45) 원래 제목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다. 본 목록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표지 제목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46) 이 체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8세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1481년 판본의 번역문 문체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

-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16. 『금강경삼가해』(金剛般若波羅密經三家:解) : 1482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17. 『관음경』(佛)頂心多羅尼經) : 1485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⁴⁷⁾, 불경류
18. 『구급간이방』: 1489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⁴⁸⁾ - 번역문(순국문), 의서류
19. 『시식권공』: 1496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불경류
20. 『육조대사법보단경』: 1496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21. 『속삼강행실도』: 1514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⁴⁹⁾, 독음 있음), 유경류
22. 『번역소학』: 1518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없음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23. 『이륜행실도』: 1518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유경류
24. 『정속언해』: 1518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⁵⁰⁾, 독음 없음) - 협주⁵¹⁾ - 번역문(순국문), 유경류
25. 『여씨향약』: (朱子增損呂氏鄉約) : 1518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⁵²⁾,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유경류
26. 『우마양저염역치료방』: 1541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⁵³⁾), 의서류
27. 『분문온역이해방』: 1542년

47) 이 문헌은 앞에 원문인 한문본을 보인 다음에 언해본을 합철한 편집상의 특징을 갖는다.

48) 한문 원문에 정음으로 주석이 달려 있는 특이한 체재로 되어 있다.

49) 중간본(1581)은 순국문으로 언해가 되어 있다.

50) 한자 차자표기 구결.

51) 판본에 따라 협주가 있는 것도 있고, 언해문 속에 풀어놓은 것도 있다. 여찬영(2003: 256-259) 참고.

52) 한자 차자표기 구결.

53) 이두를 사용한 번역도 함께 실려 있다.

-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의서류
28. 『불설대부모은중경언해』: 1553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불경류
 29.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1560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불경류
 30. 『선기귀감언해』: 1569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없음), 불경류
 31. 『계초심학인문언해』: 1577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불경류
 32. 『발심수행장언해』: 1577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불경류
 33. 『야운자경언해』: 1577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불경류
 34. 『소학언해』: 1577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35. 『중간경민편언해』: 1579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36. 『칠서언해』: 1590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37. 『효경언해』: 1590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⁵⁴⁾(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38. 『백련초해』: 16세기 중엽 이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있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시가류
 39. 『언해두창집요』: 1607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의서류
 40. 『언해태산집요』: 1608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의서류
 41. 『연병지남』: 1612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병서류
 42.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17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유경류
 43. 『가례언해』: 1632년

54)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문헌의 초간본과 중간본도 의역과 직역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이현희 1996: 244).

-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44. 『마경초집언해』: 1635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수의학서류
45. 『화포식언해』: 1635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없음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병서류
46. 『신전자취염초방언해』: 1635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없음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병서류
47. 『여훈언해』: 1620-1640년 사이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⁵⁵⁾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48. 『노걸대언해』: 1670년
한문 원문(독음 있음) - 협주 없음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없음), 역학서류
49. 『박통사언해』: 1677년
한문 원문(독음 있음) - 협주 없음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없음), 역학서류
50. 『오륜전비언해』: 1721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없음), 역학서
51. 『여사서언해』: 1736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52. 『논어올곡선생언해』: 1749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53. 『대학올곡선생언해』: 1749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54. 『맹자올곡선생언해』: 1749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유경류
55. 『윤음언해』: 1752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조칙류
56. 『지장경언해』: 1762년
한문 원문 없음⁵⁶⁾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불경류

55) 이 문헌은 한문 원문의 수록 양식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한문 원문을 맨 앞에 싣고, 그 다음에 차례로 구결문과 국한 혼용체로 한자에 독음이 달린 언해문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찬영(2004) 참고.

56) 서문만 한문으로 되어 있다. 원문 한자에 일일이 독음이 달려 있는 음독본(송광사본)도 있다.

- 57. 『무예도보통지언해』: 1790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⁵⁷⁾ - 협주 없음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병서류
- 58. 『증수무원록언해』: 1792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국한 혼용, 독음 있음), 법의학서류
- 59. 『경신록언석』(敬信錄諺解) : 1796년
한문 원문 없음 - 협주 있음 - 번역문(순국문), 도교류
- 60. 『오륜행실도』: 1797년
한문 원문(구결 없음, 독음 없음) - 협주 있음 - 번역문(순국문), 유교경서류
- 61. 『신간증보삼략직해』: 1805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없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병서류
- 62. 『관성제군명성경언해』: 1883년
한문 원문(구결 있음, 독음 있음) - 협주 - 번역문(순국문), 관성교경전류
- 63. 『예수성교전서』: 1887년
원문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기독교경서류
- 64. 『턴로력당』: 1895년
원문 없음 - 협주 없음 - 번역문(순국문), 기독교문학류

이상에서 번역서의 번역 체재를 ①원문(구결문), ②협주, ③번역문 등의 범주로 나누어서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시대 구분의 인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세 가지 범주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문을 보면, 한문 원전을 저본으로 하는 문헌의 경우에는 18세기 중후반에 번역문만 간행된 예도 간혹 눈에 띄이지만, 대부분 원문이 함께 실려 있는 대역 체제⁵⁸⁾로 되어 있다. 오늘날의 번역서 체제대로 원문이 없이 번역문만 실려 있는 문헌이 일반화된 것은 한문 이외의 외국어가 원천언어가 되는 19세기 말엽으로 보인다. 원문에 달린 구결과 한자의 독음은 시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기보다, 위 목록에서 보듯이 번역 대상 문헌의 성격에 좌우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위 목록의

57) 한문 원문과 별도로 편집되어 있다. 한문 원전이 4권 4책이고, 언해본이 1권 1책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문 원본이 없이 언해본만 있는 체제로 볼 수도 있겠다.
58) 같은 대역 체제라도 구절을 단위로 원문과 번역문이 짝지어진 것도 있고, 문장, 단락, 이야기 등이 각각 번역의 단위가 되어 원문과 번역문이 짝지어진 것도 있다.

『백련초해』의 경우를 보면, 한문 원문에 구결이 없는 대신 한자의 독음이 달려 있는데, 이 문헌이 한시를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을 독자로 하는 한시 학습서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⁵⁹⁾ 이는 같은 시기류 번역서라도 한자의 독음이 달려 있지 않은 앞선 시기의 『두시언해』와 좋은 비교가 된다. 번역문의 협주에 대해서도 뚜렷한 시대별 흐름을 찾을 수 없었다. 대체로 불교경전과 유교경전에는 구결을 다는 일이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번역문의 문체 종별을 보면, 15세기 말엽과 16세기 초반부터 순국문으로 번역된 문헌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역시 일관된 시대별 흐름은 찾을 수 없었다. 17세기 후반에도 국한문 혼용체 번역문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략적으로 볼 때, 유교와 불교 경전의 경우에는 국한문 혼용체의 전통이 우세하고, 교화서나 실용서의 경우에는 순국문의 전통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한문 혼용체의 경우에 한자에 대한 독음 여부는 앞서 원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층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역시 시대별 흐름과는 무관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⁶⁰⁾

5. 2. 내용적 측면

본 5.2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번역서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역시 시대 구분의 인자를 찾아보기로 한다.⁶¹⁾ 우선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가장 먼저 번역된 문헌인 『세종어제훈민정음』(1447년)을 제외하고, 대략적인 분류를 시도해 보면 아래와 같다.⁶²⁾

- 59) 이와 같이 한자어 독음의 존재 여부를 번역서의 성격(특히 대상 독자층)과 관련시킨 논의는 김완진(1972)에서 비롯된다. 여찬영(2003)도 같은 맥락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60) 홍윤표(1997: 207-208)에 따르면, 편집 태도를 기준으로 한 번역서의 분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원문과 번역문을 대역 형식으로 편집한 방식(전통적인 언해)과 앞에 원문을 모두 실고 나서 번역문을 실는 형식으로 편집한 방식(19세기 말 문헌) 및 원문과 번역문을 별책으로 하여 편집한 방식(18세기 문헌)의 차이도 간행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시대 구분과는 무관하다.
- 61) 앞선 시대의 번역서는 그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형 분류를 요하지 않는다. 석독구결 자료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고, 이두 번역 자료는 법률 및 양잠과 관련된 것이다.

(10) 번역서의 내용 유형별 분류

(10.a) 종교 관련

(ㄱ) 불교

『능엄경』(1462), 『법화경』(1463), 『반야심경』(1464), 『불설아미타경』(1464),
 『선종영가집』(1464), 『금강경』(1464), 『원각경』(1465), 『목우자수심결』(1467),
 『법어』(1467), 『몽산화상법어』(1472), 『남명집』(1482), 『금강경삼가해』(1482),
 『관음경』(1485), 『시식권공』(1496), 『육조대사법보단경』(1496),
 『불설대부모은중경언해』(1553),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1560),
 『선가귀감언해』(1569), 『발심수행장언해』(1577), 『야운자경언해』(1577),
 『지장경언해』(1762)

(ㄴ) 유교

『번역소학』(1518), 『소학언해』(1577), 『칠서언해』(1590), 『효경언해』(1590),
 『논어올곡선생언해』(1749), 『대학올곡선생언해』(1749),
 『맹자올곡선생언해』(1749),

(ㄷ) 교화서류

『내훈』(1475), 『삼강행실도』(1481), 『속삼강행실도』(1514), 『이륜행실도』(1518),
 『정속언해』(1518), 『여씨향약』(1518), 『계초심학인문언해』(1577),
 『중간경민편언해』(1579),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가례언해』(1632),
 『여훈언해』(1620-40년 사이), 『여사서언해』(1736), 『오륜행실도』(1797)

(ㄹ) 도교, 관성교, 기독교

『경신록언석』(1796), 『관성계군명성경언해』(1883), 『예수성교전서』(1887)

(10.b) 문학 관련

『두서언해』(1481), 『백련초해』(16세기 중엽 이후), 『턴로력명』(1895)

(10.c) 실용 관련

(ㄱ) 의서류(수의학서 포함)

『구급간이방』(1489), 『우마양저염역치료방』(1541), 『분문온역이해방』(1542),
 『언해두창집요』(1607), 『언해태산집요』(1608), 『마경초집언해』(1635),
 『증수무원록언해』(1792)

(ㄴ) 병서류

『연병지남』(1612), 『화포식언해』(1635), 『신전자취염초방언해』(1635),

62) 아래 분류 체계는 위 (9)의 번역 체제 조사 목록에 의거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역시 표본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예도보통지언해』(1790), 『신간증보삼략직해』(1805)

(10.d) 역학서류

(ㄱ) 학습서

『노걸대언해』(1670), 『박통사언해』(1677), 『오륜전비언해』(1721),

(ㄴ) 운서

『홍무정운역훈』(1455)

(10.e) 조칙/공문서류

『운음언해』(1752)

위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불교와 유교 경전 및 교화서가 양적으로 가장 많고 시기적으로도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번역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불교와 유교 경전도 넓은 의미에서 백성의 교화가 목적인다고 한다면, 조선 시대에 전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번역된 문헌은 바로 교화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임란과 호란 이후에 병서가 번역된 사실이나, 의학서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꾸준히 번역된 사실 등을 특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별 분류에서도 시대를 구분하는 뚜렷한 인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5. 3. 시대 구분의 실제

이제 5장에서 진행해온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작업에 결론을 내릴 단계에 이르렀다. 논의의 편의상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인자를 발견하기 위해 20세기 초반까지 생산된 실제 번역 자료를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점검해 보았는데, 전자에서는 번역 언어의 유형(SL/ TL), 번역 양식, 번역 체제 등을 매개변수로 삼아서 자료를 검토했고, 후자에서는 내용별 분류 체계를 작성하여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우리는 번역 언어의 유형에서 뚜렷한 시대 구분의 인자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 즉, 한국 번역사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종별에 따라 시대 구분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시대 구분의 인자는 목표언어의 종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번역사를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하고자 한다.

우리의 번역 자료(B→A)에 나타나는 목표언어(TL)는 석독구결, 이두, 국문자의 세 가지이다. 앞서 석독구결 번역 자료는 의사 번역으로 규정했으므로, 이 자료가 생산된 시기(11-13세기)를 의사 번역 시대(Pseudo Translation Period)로 부르기로 한다. 물론 그 이후, 이두 번역 자료와 국문 번역 자료가 생산된 시기(14세기 이후)는 번역 시대(Translation Period)로 명명될 수 있다. 번역 시대는 다시 이두 번역 시대(14세기-15세기 중반, Translation-by-Idu Stage)와 국문 번역 시대(15세기 중반 이후, Translation-by-Korean Alphabet Stage)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국문 번역 시대는 (문자를 포함한) 국문의 위상 변화와 원천언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19세기 말엽을 경계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전을 정음 번역 시대(Translation-by-Jeongeum Phase)로, 그 이후를 한글⁶³⁾ 번역 시대(Translation-by-Hangeul Phase)로 부르려고 한다. 이상에서 도출한 시대 구분 체계를 바탕으로 삼고, 번역 자료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의 검토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특징을 덧붙여서 한국 번역사의 간략한 연표를 작성해 보면 아래 (11)과 같다.

(11) 한국 번역사 연표

- A. 번역의 선사 시대(Pre-Historic Age of Translation, 11세기까지)
- B. 번역의 역사 시대(Historic Age of Translation, 11세기 이후)
 - 1. 의사 번역 시대(The Pseudo Translation Period, 11-13세기)
 - ① 독해와 번역의 중간 단계를 보여준다.
 - ② 뜻으로 읽는 석독구결 문자의 약체자와 역독점이 사용되고 있다.
 - ③ 『구역인왕경』 등의 자료가 현전한다.
 - 2. 순정 번역 시대(The True Translation Period, 14세기 이후)

63) 실제 ‘한글’이라는 명칭은 1913년에 확인된다고 하지만(조항범 1997: 242), 여기서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음이 국가 문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고종의 칙령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에 대한 포괄적인 명칭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국문’이라는 용어도 1869년에 등장했다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1446년 이후로 우리가 사용해온 ‘우리나라의 문자’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크고 작은 부침은 있었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자각 여부와 무관하게 15세기 중반에 창제된 이래로 줄곧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2.1. 이두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Idu Stage, 14-15세기 중반)

- ① 한자 단어와, 문법 요소를 나타내는 이두 문자로 완전한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고 있다.
- ② 『대명률직해』 등의 자료가 현전한다.

2.2. 국문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Korean Alphabet Stage, 15세기 중반 이후)

2.2.1. 정음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Jeongeum Phase, (15세기 중반-19세기 후반)

- ① 15세기 중반 창제된 훈민정음으로 완전한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고 있다.
- ② 한문 원전을 우리말로 옮긴 언해 번역이 주종을 이룬다.
- ③ 언해 번역은 구결이 달린 한문 원문과 정음 번역문이 짝을 이루고 있다.
- ④ 『능엄경언해』 등의 불교경전, 『소학언해』 등의 유교경전, 『두시언해』 등의 문학서, 『삼강행실도』 등의 교화서, 『구급간이방』 등의 실용서를 망라하는 번역이 이루어졌다.

2.2.2. 한글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Hangeul Phase, 19세기 후반 이후)

- ① 국문자의 지위가 국가의 공식 문자로 격상되었다.
- ② 원천언어가 한문 일변도에서 일본어, 서구어로 다변화되었다.
- ③ 일반 대중이 서구 문물과 처음으로 접촉한 개화기에 일시적으로 변안 양식이 나타났다.
- ④ 『유옥역전』, 『턴로력명』 등이 이 시기의 개막을 알렸다.

6. 맺음말

본고는 한국 번역사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도출한 다음, 그 기준에 따라 고대에서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치는 한국 번역의 통사(通史)를 시대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⁶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인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준수한 원칙은 내사 위주의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번역사를 구성하는 번역 자료 자체

64) 구어의 번역인 통역(通譯)의 역사를 포함하는 광의의 한국 번역사는 별도로 집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의 시대 구분은 문헌 자료에 입각한 번역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의 변화에서 번역사의 시대 구분 인자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 태도 하에서, 번역 언어의 종별, 번역 양식, 번역 체제 등 번역 자료의 형식적 측면과 내용 분류에 입각한 번역 자료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목표언어(표기 수단)의 종별을 뚜렷한 시대 구분 인자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시대 구분의 문제에서 어떤 기준 내지 체계가 절대적으로 옳고, 따라서 다른 기준 내지 체계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는 있을 수 없다(이광호 2001: 12). 특히 번역이 갖는 정치적 속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번역사의 시대 구분에는 내사가 아닌 외사에서 도출된 기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 추구한 내사 위주의 시대 구분 방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원칙을 제안하고, 이 원칙에 따라 한국 번역사의 시대를 구분해 본 하나의 시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본고의 논의에 더하여, 번역의 외사에 속하면서도 번역사의 시대 구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어, 보다 완벽한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물론 여기에는 통번역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 번역 활동이 포함되고,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현대의 번역 활동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병철. 1975.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_____. 1998.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상, 하), 서울: 을유문화사.
 김완진. 1972. 「세종대의 어문 정책에 대한 논의 -훈민정음을 圍繞한 數三의 과제」, 『성곡논총』 3, 185-215, 성곡학술문화재단.
 김정우. 1990. 「15세기 불경 언해의 문체와 어휘-능엄경언해의 경우」, 『팔리대 장경 우리말읽기』, 115-148, 경전읽기모임.
 _____. 2003. 「북한의 번역 연구와 고전 번역 사업」, 『교육이론과 실천』 12권

- 3호, 307-317,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_____. 2005.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 『우리말연구』 16집, 139-161, 우리말학회.
- 김지원. 2007. 「한국의 번역 전통(Korean Tradition in Translation)」, 이화여대 국제학술대회 “통역번역에서 문화 요소의 차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표문(2007. 06.14).
- 남풍현. 1998, 「고대 국어 자료 -국어학의 상대 자료-」, 『국어의 시대별 연구 3 고대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서울: 태학사.
- 박소동. 1995, 「퇴계 四書釋義의 경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두현. 2006,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47, 3-38, 국어학회.
- _____. 2005.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서울: 한국문화사.
- 송 민. 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25-34, 국어연구소.
- 안병희. 1973. 「中世國語 研究 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 -翻譯樣式을 중심으로 하여-」, 『어학연구』 9권 1호, 75-86, 서울대 어학연구소.
- _____. 1976. 「口訣과 漢文 訓讀에 대하여」, 『진단학보』 41호, 143-165, 진단학회.
- 여찬영. 2003, 「조선조 언해서의 번역비평적 연구」, 『배달말』 33, 239-262, 배달말학회.
- _____. 2004, 「언해서 ‘여훈언해’의 번역학적 연구」, 『어문학』 86, 61-84, 어문학회.
-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4.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 번역」, 『번역학연구』 5-2, 69-91, 한국번역학회.
- 윤용선. 2003, 『15세기 언해 자료와 구결문』, 서울: 역락.
- 이광호. 2001. 「국어사의 시대 구분, 그 실상과 문제점」, 『국어문법의 이해 2』, 11-35, 서울: 태학사.

- 이기문. 1998. 『新訂版 국어사 개설』, 서울: 대학사.
- 이현희. 1996. 「중세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연구 1 중세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이희재 역. 2001. 『번역사 산책』(翻譯史の プロムナド、1993, by Yumi Tsuji), 서울: 궁리.
- 전현주. 2004. 「다중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번역문학사」, 『번역학연구』 5-1, 167-181, 한국번역학회.
- 정 광. 1995.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5권 2호, 87-107,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정혜옥 역. 2002. 『번역과 제국: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 해설』(*Translation and Empire*, 1997, by Douglas Robinson), 서울: 동문선.
- 조규태. 2007. 「배달말이란 무엇인가」, 『배달말, 진단과 전망』(학술대회 초록집) 1-19, 배달말학회.
- 조항범. 1997.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서울: 한국문원.
- 최현배. 1982. 『(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문화사.
- 홍윤표. 1997. 「근대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연구 2 근대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Baker M.. 1998.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snett-McGuire. 1980. *Translation Studies*, Methuen, London: Routledge.
- Jac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Massachusetts: Harvard U P.
- Nida, E. A. &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 Pym, Anth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UK.
- Song, Yo-In.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Seoul: Dongguk U P.

[Abstract]

A Tentative Demarcation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demarcating the Korean translation chronicle, after having established some reasonable demarcation criteria from the dawn of translation era to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results discussed so far are as follows:

The key point on which the author persistently has emphasized in finding out the proper, and relatively objective, criteria to demarcate the Korean translation history, is that they should be based upon the intra-history, not extra-history, of translation; that is, they should be extracted from the thorough survey for concrete translation materials themselves, which in turn form the body of translation history. Taking this basic principle into consideration, the author has tried to find out some factors which led the changes revealed in the Korean translation history by examining both outer and inner aspects of translated books. The former aspects taken into account in this paper are their source and target languages, their transla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translation, their translation formats, and the latter ones are the kinds of fields such as Buddhist/ Confucian scriptures, armory books, medical books, etc.

The strongest factor that we have found out from our survey and analysis of the necessary translated materials, is the kinds of languages relevant languages, especially target language. The tentative demarcation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 is as follows:

- I. The Pseudo Translation Period (From 11th to 13th century)
- II. The Pure Translation Period (From the 14th century and after)
 - II.a. The Translation-by-*Idu* Stage (To the middle of 15th century)
 - II.b. The Translation-by-Korean Alphabet Stage (From the middle of 15th century and after)
 - II.b.1. The Translation-by-*Jeongeum* Phase (To the latter of 19th century)
 - II.b.2. The Translation-by-*Hangeul* Phase (From the latter of 19th century and after)

▶ Key Words: translation history, demarcation of chronicle of Korean translation, pseudo-translation, *Idu*, *Jeongeum*, *Hangeul*, kinds of target languages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8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3월 8일